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3년 겨울 제69권 4호



고난 중에도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차이나 반도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세상을 밝히는 말씀의 빛

한글 성경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전통 사회의 구습을
타파·개혁하는 데 앞장서며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 잡혀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현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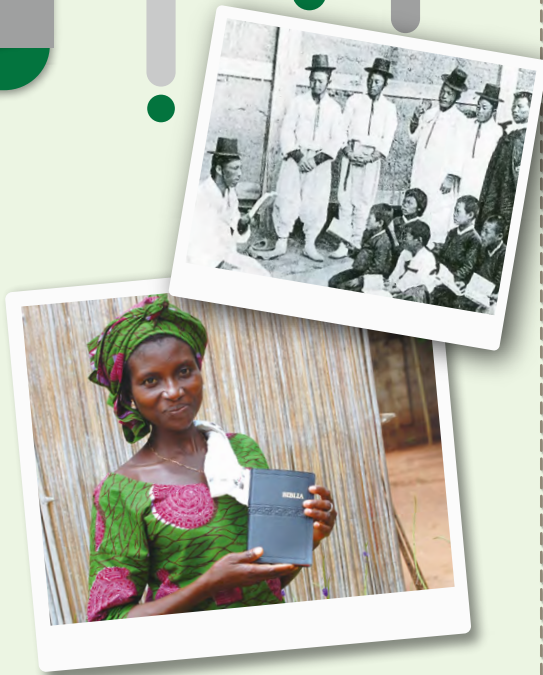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현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한국

2023 겨울 제69권 4호

- 02 **포토에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 04 **2023 성서사업 보고**
- 06 **커버스토리**
인도차이나 반도에 성경을!
- 10 **2023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8개 나라에
804,332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 12 **성경을 받은 사람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자(Aja)어로
말씀하십니다!"
- 15 **우크라이나에서 온 소식**
성경은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 16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말씀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 18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20 **후원 이야기**
- 24 **대한성서공회 소식**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재단사무국/홍보진흥본부(모금·홍보)**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성서사업센터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3년 12월 31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타피에스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레베카(Rebecca)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이베리아는 수십 년에 걸친 내전으로
국민들은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가난으로 배움의 기회가 없어
문맹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문맹률이 더 높습니다.

라이베리아성서공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글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문자교실을 진행합니다.

레베카(Rebecca)도 글을 읽지 못했지만
문자교실을 통해 글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자교실을 통해 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자교실 덕분에
성서 번역팀의 검토자로 선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성서 보급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의현 사장

금년 한 해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국내외 성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해외 성서 제작 협의가 재개되면서 세계 자매 성서교회 대표들과 실무자들의 한국 방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르완다, 프랑스, 스페인어 성경 출판 및 보급을 위한 남미지역 성경 출판위원회에 이어서, 마다가스카르, 세계성서교회연합회 재무 책임자들이 본 공회를 방문하여 향후 성서 제작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지역 성서교회 대표 회의 참석에 이어서, 6월에는 라오스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성서 출판회의에 참석하여 실무자들과 성서 제작과 출판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8월에는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서교회 대표 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 이후에 성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성서교회들의 호소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

한 방법들을 협의하였습니다. 9월에는 동아프리카의 잠비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5개국을 방문하여, 성서 제작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해당 성서공회가 처한 상황을 직접 보고 그들의 성서 보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성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각 성서교회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서 성경을 필요한 만큼 주문할 수 없어서, 한국교회에 간곡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내 성서 보급 사업

금년에는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서 183,590부가 증가한 490,895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국내 성서 보급 부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 독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출판 보급하고자 합니다.

해외 성서 보급 사업

금년에는 95개 나라에 143개 언어로 지난해와 비슷한 3,599,196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헌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이래 총 194,519,657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세계 성서 수출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본 공회에서는 제작 품질의 우수성을 유지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와 제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회에서는 자매 성서교회들의 요청으로, 레레어 성경(부르키나파소)과 아르메니아어 어린이 그림 성경인 '하나님의 사랑' 조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200개의 조판이 완료되었으며, 8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성서 기증 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성서교회연합회 지원금과는 별도로,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8개 회원 성서교회에 미화 3백1십여 만 불에 해당하는 804,332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료 기증 금액이 약 65%가 증가한 것입니다. 국내외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개정 작업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 위원회”가 16개 교단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위원들은 우리말 어법에도 맞고 원문에도 충실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 초안을 만들고, 분과 회의를 거쳐 개정 초안을 확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3개 분과로, 신약은 2개 분과로 나누어서 각 분과별로 본문을 맡아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 분과 회의는 4회, 전체 회의는 1회가 열렸습니다. 개정 작업은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어 위원들이 마련한 개정 기초 자료가 60%, 개정 위원들이 작업한 개정 초안 원고가 50%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 신약 본문의 개정 초안이 완성되면, 개정 위원들이 교차 검토를 하고, 국어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분과 회의를 거쳐 개정 검토 원고를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개정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본 공회 홈페이지에 공간을 만들어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교회 제140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2023 성서사업 보고



국내성서 보급

2,308,566부의
성서 보급



해외성서 보급

95개 나라에 143개
언어로 3,599,196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



해외성서 기증

68개 나라에
804,332부의 성서 기증



후원 헌금

지난해와 비슷한
56억 8천여만 원

인도차이나 반도에 성경을!

동남아시아의 대륙부를 차지하는 인도차이나 반도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나라들은 강력한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초대 교회가 성장했듯이 이 지역의 교회들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키는 신앙



캄보디아는 인구의 98%가 불교를 믿는 강력한 불교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교 신

자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주변의 이웃들은 저를 핍박합니다. ‘너는 캄보디아인인데 왜 예수님을 믿냐’라고 비난합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캄보디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헝만나(Hengmanna)/캄보디아



▲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불교사원/캄보디아



▲ 가정교회 전도자 헝만나(Hengmanna)

캄보디아는 UN이 정한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대다수는 빈곤으로 인해 성경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각한 교육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맹률이 높습니다. 캄보디아성서공회는 군부의 변화와 복음화를 소망하며 문자교실을 통해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자교실에서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글을 가르치는데,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를 위로해 줍니다.”

-보파(Bopha)/캄보디아



▲ 문자교실 봉사자 보파(Bopha)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는 부흥



사회주의이며 불교국가인 라오스는 1990년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나, 포교 및 선교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오스의 기독교인들은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신앙포기각서를 쓰라는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라오스 교회는 성도들의 달라진 삶과 남을 섬기며 돌보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먼저 성경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며 교회에는 성경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2만 명

정도의 라오스 기독교인 중 성경을 가진 이는 30%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제가 죄 인임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현재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 삶에 큰 변화를 주었고, 그 변화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판지(Panji, 가명)/라오스



▲ 주일학교 교사 판지(Panji, 가명)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



미얀마는 인구의 88%가 불교를 믿는 뿌리 깊은 불교국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

어 힘들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어려움에도 미얀마의 기독교는 변두리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부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미얀마에 성경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얀마에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이 람 탕(Khoi Lam Thang)/미얀마성서공회 총무



▲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미얀마의 기독교인

미얀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말씀의 힘



태국에서의 불교는 국가 운영의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국 헌법 제7조에 국왕은 불교도이며 종교의 수호자임을 명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태국은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나 불교 외 이타종교의 교세 확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불교를 기초교육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며 불교를 국민들의 가치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시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은 성경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 서적을 가져가시며 읽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까 봐 두려워하셨죠.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은 제 태도, 삶의 목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이 넘게 주님을 섬겨왔고, 이런 변화를 보고 제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힘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차르차이(Charchai)/태국



▲ 태국 현지 교회 목사가 된 차르차이(Charchai)



▲ 인도차이나 반도 지도

인도차이나 반도에 보급되는 성경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인내로 신앙을 지키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불교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며 받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더 큰 부흥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인도차이나 반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8개 나라에 804,332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 짧은 글씨 -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3.10.31 기준)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하신 성경은 전 세계 미자립 성서공회들의 성경 기증 프로그램 및 성경 보급 사업 지원에 사용됩니다.



아메리카
15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28개국

가나, 가봉, 기니, 기니 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앙골라, 에리트레아,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아시아 · 태평양
9개국

남태평양,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인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유럽 · 중동
16개국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이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조지아,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자(Aja)어로 말씀하십니다!"



▲ 베냉의 재래시장 모습

베냉에 사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흔한 관행은 주일 아침에는 교회에 가고, 주일 저녁이 되면 부두교 사원에 가는 것입니다. 서아프리카 베냉과 이웃한 나라 토고에 사는 약 120만 명의 아자어 사용자들에게 부두라 불리는 고대 종교가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병이 들면 지역의 주술사에게 치료를 구합니다. 행운을 얻고 싶으면 지역 사원에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들의 영혼을 조각으로 만든 부적이나 신성한 물건에 집어넣는 행위를 합니다.

부두는 서아프리카 및 특히 베냉에서 기원합니다. 오늘날 약 60%의 아자 부족 사람들은 아직도 부두와 유사한 미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중 30%는 기독교인으로 종종 복음의 진리를 부두교와 혼용하기도 합니다.

문화의 강한 영향력은 사람들을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보유하지 못할 때 겪게 될 어려움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날 아자 부족 사람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세대에 걸쳐 아자 부족 목회자들은 불어 또는 기타 지역 언어인 에웨어나 폰어로 된 성경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자 부족 기독교인들, 심지어 목회자들 스스로도 성경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재는 아자 부족 교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아자 부족 기독교인들은 그

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을 연결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두교의 옛 관행을 고수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익숙한 관행과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 사이에서 갇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두의 영적 노예 상태를 밝히고 복음으로 인한 변화의 빛을 열어주기에 충분한 능력임을 아자 부족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자 부족 여성 합창단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봉헌식을 위해 특별히 만든 곡을 연주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의존해 왔던 언어들을 나열합니다. 그런 다음, 기뻐하는 진리의 말씀을 외칩니다. 오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폰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자어로 말씀하십니다!”

-아자어 첫 번역 신약 봉헌식 참석자

“어디에나 있는 모든 아자 부족 사람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자어로 말씀을 하시기 위해 택하신 날입니다! 이제 우리말로 된 신약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진(Eugene)/아자 부족 교회 목사



▲ 아자어 첫 번역 신약을 받고 기뻐하는 베냉의 아조베 마을 사람들



▲ 아자어 첫 번역 신약 봉헌식에 참석한 어린이

아자어 첫 번역 신약 봉헌식에 참석한 다른 목사들처럼 유진(Eugene) 목사도 아자어 성경이 없어서 설교 준비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신약 번역을 약 20년 전에 시작했으나, 오늘 드디어 우리가 그 신약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자 부족 교회가 우리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 드리게 될 첫 번째 주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우리 교회에서 아자어 신약을 읽을 것입니다!”

-콘도(Kondo)/아자 부족 교회 성도

콘도(Kondo)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아자어 사용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52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반 세기동안 그는 아자어로 된 성경을 기다리며 기도해 왔고, 이것을 그의 네 명

의 자녀와 여섯 명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 나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는 토고의 집에서 모터바이크로 72킬로미터를 여행해 와 아자어 신약을 받았습니다.

글을 배우는 프로그램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아자 부족 교회는 더 많은 베냉과 토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첫 번역된 아자어 신약으로 인해 아자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은 복음으로 생명을 변화시키는 문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성경의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




**성경은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이번 전쟁 중에 한국교회가 후원한 성경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교회는 물론, 우크라이나성서공회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지원이었습니다. 성경은 마치 진통제처럼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저희와 이 시기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에 성경이 도착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보내주신 성경 한 권 한 권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저희 우크라이나성서공회에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성서공회와 대한성서공회는 오랫동안 사역 파트너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귀

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바로 이 순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개인 후원자분들께서 저희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셨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어로 번역된 우크라이나어 성경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으로부터 모든 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크라이나성서공회 올렉산드르 바비추크
(Oleksandr Babychuk) 총무 🙏



말씀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전예담(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 석사 과정, 성안시민교회 청년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십니다.
그리하는 것이 내게는 좋습니다.
주 여호와를 나는 나의 대피소로
삼았습니다.

주님 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려
고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시편
73:28)

성경 말씀은 늘 가까웠지만, 때로는 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의로든 타의로든 성경을 읽었으나 그 말씀들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미숙했던 탓이 가장 크겠지만, 그와 더불어 성경 특유의 경전체와 고유의 용어들로 인한 부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지금, 너무 쉽게 풀어쓴 성경보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표현이 더 익숙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팎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에게는, 더 나아가 대학생들에

게도 현재 사용되는 성경의 문체나 용어는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 속 진리를 전하는 것에는 일체의 타협이 없어야 하겠지만, 문체나 기타 부수적인 사항으로 인해 말씀을 가까이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늘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감사한 기회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처음 읽었을 때, 충격적이었고 신선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며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잘 풀어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원문과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 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머리말에서는 새롭고 참신한 용어와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성경으로서 원문에 최대한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묵상하면서 은혜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

저,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읽고 더러는 암송도 하는 시편 23장의 마지막 구절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 아래와 같습니다.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내 삶의 모든 날에!

나 머물고 싶어, 여호와의 집에 오랜 날 동안! (시편 23:6)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해 왔음을, 그리고 앞으로 의지할 것임을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를 노랫말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말씀 중 몇 구절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십시오. 기도예 정성을 쏟으십시오. (로마서 12:12)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언제나 더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58)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 잘 드러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권면의 말을 이

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생생함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아침에 큐티할 때, 그리고 중고등부 및 청년부의 온라인 기도회를 인도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묵상 시간에는 기존의 역본과 비교하며 쉽게 풀어쓴 표현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기존에는 몰랐던 말씀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함께하는 학생들과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읽으며 보다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길, 우리에게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

내 발에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 내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한테 와서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생수가 그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7:37-38)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쟁이 지속되면서 가자 지구 내에 식량과 물자가 부족하자 주민 수천 명이 UN의 구호 물품 창고에 난입하여 생필품을 가져갔습니다. UN 난민기구는 “가자 지구 주민들의 절박함, 좌절감, 두려움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 시설이 파괴되며 바닷물로 설거지와 빨래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

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소식을 보내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정말 긴박합니다. 유대인 마을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학살과 납치로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 한 명은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어떤 폭탄은 저희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성서공회 총무
빅터 칼리셔(Victor Kalisher)

“저희는 갑자기 전시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이 제한되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매일 사상자 수를 보고 듣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전쟁이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팔레스타인성서공회 총무
나샤트 필몬(Nashat Filmon)

“우리 직원들은 두려움에 출근도 할 수 없습니다. 거리에는 차도 없으며, 모두가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음식과 물을 구입하라는 안내 방송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랍-이스라엘성서공회 총무
디나 카타나초(Dina Katanacho)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 제목

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2. 오랜 시간 두 나라를 묶고 있는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분쟁이 발생한 가자 지구의 모습



▲ 기증 예식에 참석한 의림교회 성도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수원제일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경을 보냅니다

의림교회 - 르완다 <킨야르완다어 성경> 3,410부 기증

2023년 9월 7일, 의림교회(김명현 목사)의 후원으로 르완다에 <킨야르완다어 성경> 3,41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의림교회 김명현牧사는 “르완다를 돕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르완다에 성경을 보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르완다성서공회 비아투르 루지비자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의림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취약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르완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르완다는 종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르완다 대학살’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몸과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르완다 교회는 국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학살 이후 큰 혼란과 상처가 남아있는 르완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르완다에 전해지는 <킨야르완다어 성경> 3,410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고난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지키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설 파키스탄

수원제일교회 - 파키스탄 <우르두어 성경> 7,330부, <우르두어/영어 대조 어린이 그림 성경> 3,000부 기증

2023년 9월 12일, 수원제일교회(김근영 목사)의 후원으로 파키스탄에 <우르두어 성경> 7,330부, <우르두어/영어 대조 어린이 그림 성경> 3,0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수원제일교회 김근영牧사는 “이 성경을 어떤 영혼이 받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받는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손에 쥐는 영혼들마다 그들의 인생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파키스탄의 소수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을 통해 파키스탄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성서공회 아자르 무시탁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수원제일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성경은 성경을 구입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보급될 것입니다. 특히 빈민가, 도심지, 농촌 마을, 벽돌 가마 노동자 등이 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이 갈

급한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큰 은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97%가 이슬람교 신자로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차별과 핍박의 대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폭탄 테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 사람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에도 큰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공장이나 벽돌 가마 노동자로 일하며 어려운 생계를 겨우 유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경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키스탄에 전해지는 <우르두어 성경> 7,330부, <우르두어/영어 대조 어린이 그림 성경> 3,000부는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 성경 증정(왼쪽부터 본 공회 정경재 본부장, 호재민 총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 고영용 목사, 김광한 장로)



▲ 기증하는 <영어 성경> 앞 이관중 집사

튀르키예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의도순복음교회 - 튀르키예 <튀르키예어 성경> 4,200부, <튀르키예어 신약> 8,542부 기증

2023년 10월 2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의 후원으로 튀르키예에 <튀르키예어 성경> 4,200부와 <튀르키예어 신약> 8,542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튀르키예어 성경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터키성서공회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저희의 간절한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지진 피해 지역을 포함한 튀르키예 전역의 교회에 보급될 것입니다. 성경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튀르키예는 8천만 명의 인구 중 대다수가 무슬림인 국가로, 기독교인은 1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회의 재정후원이 미약하여, 성서공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불어 지난 2월,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청도 긴급합니다. 믿음을 지키던 기독교인들은 이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들을 보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경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튀르키예에 전해지는 <튀르키예어 성경>, <튀르키예어 신약> 12,742부는 튀르키예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힐 남수단

이주찬, 이관중 집사 - 남수단 <영어 성경> 10,750부 기증

2023년 11월 15일, 이주찬, 이관중 집사의 후원으로 남수단에 <영어 성경> 10,75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남수단성서공회 세실리아 카이 하룬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아드님(이주찬)을 기억하며 저희 남수단성서공회에 성경을 후원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성경은 저희 성서공회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변화된 삶을 사는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관중 집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아들(이주찬)은 작년 3월에 떠났지만, 이 아이가 새로운 씨앗이 되어 남수단에 만 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계기가 된 것을 영광으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남수단은 긴 내전 끝에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종족 간의 갈등으로 다시 내전을 겪으며, 수많은 난민과 고아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잃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으며 공식적인 내전은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정세 속에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수단에 전해지는 <영어 성경> 10,750부는 내전의 트라우마와 반군의 위협으로 고통받는 남수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남수단 사람들이 후원받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한 해 동안 회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연말 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방법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www.bskorea.or.kr 접속

성경후원 → 나의 후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클릭



마이페이지 - 이름, 휴대전화번호(인증번호 받기),
인증번호를 차례대로 입력 후 **로그인** 클릭



좌측 메뉴 **기부금영수증 신청** 클릭
개인정보 확인 후 **저장하기** 클릭

*정확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를 꼭 확인해 주세요!



신청 완료
(개인정보를 저장하시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면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마이페이지 재접속 후 메뉴 기부금 영수증 > **조회하기** 클릭 후 출력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을 희망하시거나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080-374-3061 (수신자 부담)

꼭 읽어주세요!

- 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2024년 1월 5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이전 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 소득 공제는 '종교단체 기부금(코드41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재)대한성서공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체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12월 10일(둘째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권서들의 '복음짐'

권서들은 성경책을 담은 '복음짐'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방문하여 한글 성경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큰 은혜를 입은 우리 민족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참된 위로와 자유,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기로 다짐하며,

성경을 받지 못한 지구촌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는 전 세계 이웃들에게

성경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